2019년 동아시아 차세대 연구자 국제학술대회

東亞細亞學의 現在的 意味

- 일시: 2019년 8월 12일 ~ 2019년 8월 13일
- 장소: 영남대학교 제2인문관 201호~301호
- 주관: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 주최: 영남대학교 BK21+ 글로컬동아시아문화콘텐츠 전문인재양성 사업단,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회를 주최한 BK21+ “글로컬 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孫承會 교수입니다. 매년 똑같지만 일년 중 가장 더운 계절에 그것도 한반도에서 가장 더운 경산을 不遠千里 찾아 주신 일본 간사이대학,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남경우전대학, 대만대학의 교수님과 차세대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남대 문과대 학장님을 비롯하여 동아시아문화학과 교수님과 발표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대학원생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 대학이 이 학회에 참석하고 또 주최한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의 교수님 및 학생들과 안정적인 많은 교류를 갖게 됨에 따라 차세대연구자들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대학과 학과 간의 우의와 신뢰가 깊어졌고, 또 앞으로도 우호와 친선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기대가 반드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모든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경기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경제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도 좋다고는 안 하니까요.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나라들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영토분쟁, 역사전쟁, 교과서 파동, 嫌韓·嫌中·反日·恐韓·克日 등에 이어 이제는 경제 전쟁이란 말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동아시아 현실을 보다보면 현재가 19세기 말인지 21세기 초인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도 좋지 않고 동아시아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살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도 파국에 이르지 않고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민족과 국가 그리고 중앙의 논리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학과 교수 가운데 한 분이 “민족주의 길들이기”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주장과 국수주의 내지는 쇼비니즘이라는 양 극단적 주장을 넘어 21세기의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글로컬 동아시아학 역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중앙 정치 이데올로기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안정적 동아시아론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도하는 이러한 학술적 시민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인 상호 간의 이해의 심화가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충돌을 완화하고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2일

BK21+ “글로컬 동아시아 문화콘텐츠”전문인재양성사업단 단장

孫 承 會

東亞細亞學의 現在的 意味

<8月 12日>(1日)

開 會 式 司會: 具燦烋(嶺南大學校BK21+ Glocal東亞細亞文化Contents專門人才養成事業團)	
10:00~10:45	開會辭: 孫承會(嶺南大學校 BK21+Glocal東亞細亞文化Contents專門人才養成事業團長, 東亞細亞文化學科 教授) 祝　辭: 鄭炳碩 (嶺南大學校 文科大學長, 東亞細亞文化學科 教授) 通　譯: 金明月, 金承惠 場　所: 嶺南大學校 第2人文館 201號
10:45~11:00	團體 寫眞 撮影 及 整理

午前 發表		
時間	<韓國語 • 日本語 > 301號 司會: 李貞姬 • 角野有果里	<中國語> 203號 司會: 王忠誠
11:00~11:25	崔睿岩(關西大) : 東部ユーラシア戦争中の安西都護府	杭鹰(北京外大) : 忧郁症的隐喻：《沉沦》 再解读
11:25~11:50	周琦(關西大) : 称号から見る日本と新羅の上下関係 －唐を中心に－	楼泽园(嶺南大) : 《释名 · 释天篇》 声训状况分析
11:50~12:15	崔貞順(嶺南大) : 다서(茶書)에 내재된 유교사상(儒教思想) 考察	颜龙龙(關西大) : 壬午甲申间日本对朝渐进干涉政策的确立 —以外务卿井上馨为中心—
12:15~12:40	安成姬(嶺南大) : 중국 유교전통의 계승과 현대신유학의 수용 및 연구	金明月(嶺南大) : 退溪心学的形成与特点再论
12:40~14:00	中　食	
午後 發表		

時間	司會: 鄭男熙 • 井上史美菜	司會: 苏航
14:00~14:25	金承惠(嶺南大) : 韓・日ベストセラー書籍のタイトルの分析	龙艳芸(北京外大) : 文学作品影视化传播：中国文学走出去的可行性分析——以韩剧《步步惊心：丽》为例
14:25~14:50	赵海天(北京外大) : ワーキングプアの発生要因とその解決策	陳冠如(臺灣大) : 道德、喜劇、現代性：電懋／國泰影業聊齋電影的「奇情」改編
14:50~15:15	朴定泰(嶺南大)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학습 정리 방안	魏亦均(臺灣大) : 從「兩島」到「天下」：明鄭／文學視野下臺灣、朝鮮的人際與文際關係
15:15~15:40	金英忑(嶺南大) : 중국어 성어 '不亦乐乎'의 다의성 연구	王忠誠(嶺南大) : 中国饮食走进韩国——麻辣烫为中心
15:40~16:00	茶 菓	
時間	司會: 朴定泰 • 周琦	司會: 楼泽园
16:00~16:25	ソルゴク(關西大) : 清代ハルハ地区における喇嘛旗について ——ナルバンチン=ホトクト旗を中心に——	杜珵(北京外大) : 从日本诺贝尔奖井喷现象谈大学教育对思辨能力的培养
16:25~16:50	角野有果里(關西大) : 이방자의 자선 활동에 관한 한국의 선행 연구 -지연희와 이경원의 논고 소개-	梁志佳(南京郵電大) : 高校大学生自杀行为的危险因素与保护因素研究
16:50~17:15	鄭男熙(嶺南大) : 多文化的 脈絡에서 본 Vietnam 戰爭 - Viet Thanh Nguyen의 *The Sympathizer*를 中心으로 -	许珊珊(南京郵電大) : 新媒体时代传统报刊的数字化转型 ——新旧媒体融合的现状与展望
17:15~17:40	李貞姬(嶺南大) : 문화대혁명과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	周长青(南京郵電大) : 政府购买服务背景下社会工作服务项目化运作模式的变迁及优化策略研究
晚 餐		

18:00~19:30	晚餐辭: 金良宣(嶺南大學校 大學院 東亞細亞文化學科 主任教授) 通譯: 金明月, 金承惠 場所: Chunma Arts Center Restaurant

<8月 13日>(2日)

午前 發表		
時間	**<韓國語 • 日本語 > 301號 司會: 金承惠 • ソルゴク**	**<中國語> 203號 司會: 金明月**
10:00~10:25	井上史美菜(關西大) : 世宗大王によるハングル創製過程について	贾慧颖(關西大) : 东亚甲骨学的发展历程及阶段划分
10:25~10:50	蘇哲誠(關西大) : 「モリソン号遠征」の諸相 ——ピーター・パーカーの手紙・手稿について———	吴语驰(北京外大) : 明前中期传奇小说中娼妓形象的新变 ——与唐宋传奇比较
10:50~11:10	茶 菓	
11:10~11:35	朱貞姬(嶺南大) : 언론인 신언준의 재만 조선인 문제 분석	苏航(嶺南大) : 晚明日用类书文学门类中的文学观念研究 ——以刘双松本《万宝全书》为中心
11:35~12:00	李甲順(嶺南大) : 문학공간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양상 연구 -김원일 「마당깊은 집」을 중심으로-	李秉樞(臺灣大) : 冷戰政治及文學交涉 ——臺灣、香港與「中國現代文學」
12:00~13:00	中 食	
海外學者 招請 講演會 司會: 具燦烋(嶺南大學校BK21+ Glocal東亞細亞文化Contents專門人才養成事業團) 場所: 嶺南大學校 第2人文館 201號		
13:00~14:00	藤田高夫(關西大學 東アジア文化研究科)	

	東アジア史をめぐる言説について —歷史研究の枠組としての東アジアを考えるための覚書—
14:00~15:00	黃美娥(臺灣大學 臺灣文學研究所) 「根」的政治與語文鬥爭 －臺、馬高中國文/華文教科書中在地文學的意義
15:00~16:00	张霖(北京外國語大學 中國語言文學學院) 论萧红对抗战文学模式的疏离
16:00~17:00	陆潭晟(南京郵電大學 社會與人口學院) 社会疏离漩涡中的城市空巢老人 － 应对研究的基本构想与思路浅析 －
17:00~18:00	綜合討論